



즉시 배포용: 2023년 9월 2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민주주의 강화 및 투표권 보호를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

**사전 투표 관행을 강화하는 법안(S. 6195/A.1177), 법안(S. 5984-A/A. 6132-A),
법안(S. 6519-A/A. 1565-A) 및 법안(S. 7394-A/A. 7632-A)**

**선거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S. 5965-A/A. 4009-A), 법안(S. 587/A. 268), 법안(S.
1733-A/A. 5180-A) 및 법안(S. 7550/A. 7690)**

뉴욕 주민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법안(S. 350/A. 5874) 및 법안(S. 438/A. 928)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 패키지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주 차원의 투표권법인 뉴욕 John R. Lewis 투표권법을 작년 제정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뉴욕 주민의 투표권 접근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거 절차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투표함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시민의 투표권을 옹호하고 투표권에 관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이 권리를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공격입니다. 뉴욕은 투표권을 보호하고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투표 관행 강화

법안(S. 6195/A.1177)은 부재자 투표용지가 녹화되어 있고 변조 흔적이 없는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를 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안(S. 5984-A/A. 6132-A)은 뉴욕 주민들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소 투표를 모두 같은 날에 할 수 있는 사전투표 기간 첫 날을 '골든 데이'로 지정합니다.

Brian Kavanagh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전 투표 등록 및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 법안을 포함한 이 패키지의 개혁은 최근 몇 년 동안 뉴욕 주민들의 투표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선거 관리 방식의 거의 모든 측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우리의 성공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는 이 법안 패키지를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 **Michael Gianaris** 부의장, **Zellnor Myrie**와 **Latrice Walker** 선거위원장, 의회의 후원자 **JoAnne Simon**과 **Robert Carroll**, 의회의 동료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정부 동료들, 그리고 이 문제와 다른 많은 문제들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도 칭찬과 감사를 표합니다."

Robert Carro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하원의원으로서 저의 입법 우선 순위 중 하나는 뉴욕주의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뉴욕주가 확립된 모범 사례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구식 투표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 이전 법안을 기반으로 하며 향후 추가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법안(S. 6519-A/A. 1565-A)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투표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Jo Anne Sim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함에 대한 접근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뉴욕은 사람들이 쉽게 등록하고 투표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가 유권자들에게 조기 투표소의 변경 사항을 적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변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받지 못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법은 낮은 감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대다수의 투표소에 완전히 접근할 수 없고 고유한 여행 및 접근성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S. 7394-A/A. 7632-A)은 우편 사전투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 등록된 모든 적격 유권자가 선거 전에 우편으로 조기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 유권자가 조기 우편 투표용지를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청 절차가 개발될 것입니다. 조기 우편으로 투표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선거 10일 전까지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격 유권자 및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지불한 반송 봉투와 함께 발송합니다. 조기 우편 투표용지는 선거일 이전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반송해야 하며,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투표용지 접근성 확대를 의미하며, 수백만 명의 뉴욕 유권자에게 쉽고 안전하며 안전한 우편 투표 방법을 제공합니다.

Michael Gianaris 주 상원 부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투표를 쉽게 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저는 주지사님께서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뉴욕 주민이 투표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우리의 중요한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Karines Rey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함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담하고 기념비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양분이 되고 강화됩니다.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직면하는 중대한 장벽을 제거합니다. 즉, 시간을 내어 직접 특정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는 유권자들에게 우리 주와 주 정부 사무에 자신의 목소리를 등록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을 제공한 다른 35개 주의 합창단에도 동참할 것입니다. 이 멋진 날을 가능하게 해준 Gianaris 상원의원, 입법부 동료, 투표권 옹호자들에게 감사 표하고 싶습니다."

선거 교육 강화

법안(S. 5965-A/A. 4009-A)은 지역 교도소가 지역 교정 시설에서 석방되는 투표 연령의 개인에게 유권자 등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Jamaal T. Bail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권은 미국 역사를 통틀어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의 모든 진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투표권은 우리의 권한이며 저는 모든 뉴욕 주민이 과거에 상관없이 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원의원 에디 김스와 함께 이 법안을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정부는 투표용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개인이 민주적 절차에 완전히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존의 장벽에 맞서야 합니다. 이 법안은 사법 활동에 관여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투표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전에 수감된 사람들의 권리 박탈을 종식시키고 흑인과 브라운 커뮤니티를 불균형하게 소외시킨 조직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회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데 있어 개인적인 여정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준 Eddie Gibbs 하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법안에 서명해 준 Kathy Hochul 주지사님과 보다 공평하고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 Carl Heastie 의장, 양원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ddie Gibb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수감된 남성으로는 처음으로 뉴욕주와 미국의 모든 주 정부에서 공직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은 제 마음에 가깝고 소중합니다. 최근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명의 길잡이인 아름다운 어머니 Valerie Gibbs와 소중한 딸 Ariel Gibbs를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로 엄마와 딸의

사랑과 힘은 저를 제정신으로 유지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저는 매일 공적 봉사를 통해 의롭게 생활하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기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변화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삶을 변화시킬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만 필요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시민 참여와 투표권 회복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단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Hochul 주지사, Heastie 의장,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 정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실제 제 동생 Bailey 상원의원, 동료, 친구, 동지들, 그리고 팀 전체에게 감사드립니다."

법안(S. 587/A.268)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Leroy Comri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방대하고 다양한 인구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 전역의 투표소 요원들을 적절히 준비시킴으로써 선거일에 직면하는 뉴욕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많은 공통적인 장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Latrice Walker 하원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통해 무소속 여론조사 요원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주 차원의 표준이 추가되면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Kathy Hochul 주지사가 오늘 우리 법안에 서명하면서 그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Latrice Walk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 패키지를 통해 뉴욕주는 투표권을 확대했지만 다른 주에서는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투표권을 다시 확대했지만 워싱턴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조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목소리로 뉴욕주의 모든 투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뉴욕주는 한때 "투표는 소중합니다.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비폭력 도구입니다."라고 말한 신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산을 다시 한 번 기리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안(S. 1733-A/A.5180-A)은 지역 교육위원회, BOCES, 차터 스쿨 및 비공립 학교가 학생 유권자 등록 및 사전 등록을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Shelley B. Maye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유권자 등록 및 사전 등록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제 법안을 포함한 이 법안 패키지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 민주주의의 미래를 강화하려는 Kathy Hochul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민 참여의 습관과 중요성을 배우고 민주주의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 지지해준 Monica Wallace 하원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동료들, 그리고 각 법안에 서명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Monica Wallac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한 민주주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자격이 되는 즉시 투표할 준비가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상원에 상정해주신 동료 **Shelley Mayer** 상원의원께 감사드리며,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법안(S. 7550/A. 7690)은 대통령 예비선거를 2024년 4월 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Carl Heastie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때 더 좋은 곳이며, 오늘 서명된 법안은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율과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원 다수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격을 갖춘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고 개표를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정부 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 투표권 보호

법안(S. 350/A. 5874)은 선거 사건에 대한 헌법상의 이익을 제기할 때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금지합니다.

Robert Jackso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제 법안 S350을 통해 선거법 위반을 근절하고 모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렴의 벽을 강화하고 선거가 당파적 게임이 아닌 국민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S. 438/A. 928)은 "신뢰할 수 없는 선거인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뉴욕에는 29명의 선거인단이 있으며, 이 투표는 주 내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대통령 후보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구성원으로 선출된 개인은 가장 많은 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에게 선거인단 투표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무시하려는 불량 선거인은 사임해야 합니다.

James Skoufi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믿음이 없는 선거인들'이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와 다른 후보에게 무게를 두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합니다. 오늘 뉴욕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과 기타 수많은 중요한 조치에 서명한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Jonathan Jacob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투표가 의도한 대로 집계되도록 하여 이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뉴욕주 대선의 경우,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실제로 뉴욕의 선거인단 투표를 모두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이 법률은 허위

선거인을 불법화하여 뉴욕이 점점 더 취약해지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Common Cause New York의 Susan Lerner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뉴욕은 Kathy Hochul 주지사 와 주 의회의 대담한 리더십 덕분에 더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유권자 찬성 법안 패키지는 투표소 종사자를 교육하고, 학생과 구금된 뉴욕 주민의 유권자 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더 많은 표를 확보하고, 뉴욕 주민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편 투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은 2020년 코로나19 전염병에 직면했을 때 이 우편 투표를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무소속 투표권 단체인 Common Cause/NY는 이것이 우리 헌법에 따라 절대적으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뉴욕이 채택해야 할 올바른 개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브레넌 사법, 선거 및 정부 프로그램(Brennan Center for Justice, Elections and Government Program)의 Joanna Zdanys 수석 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레넌 사법 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는 뉴욕주의 투표 및 선거 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주 지도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Hochul 주지사가 오늘 제정한 상식적인 법안은 투표소 종사자 교육을 개선하고 유권자 등록을 촉진함으로써 주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법률 개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은 유권자들을 대신하여 계속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는 올버니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을 촉구합니다."

뉴욕주 여성 유권자 연맹(League of Women Voters)의 Laura Ladd Bierman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맹은 주지사가 모든 뉴욕 주민들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관련 법안 패키지에 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수를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 공익 연구 그룹(New York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의 Blair Horner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YPIRG는 뉴욕 유권자 법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 법안에 대한 동의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에 뉴욕은 유권자 등록 및 교육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뒤쳐진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법안들이 승인됨에 따라 뉴욕주는 미국의 선거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